

News

제3호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9일 인가...국책은행도 투자 검토

아시아경제

금융위원회는 6월 9일 토스뱅크 본인가 승인 여부 결정. 이후 9~10월께 정식 출범을 목표. 본인가 승인 앞두고 산업은행이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참여도 검토
코로나19 영향으로 계획보다 늦어졌으나 지난달 당국이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확대 방안에 토스뱅크도 포함돼 본인가가 승인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

시중銀 추가로 실명계좌 터주나...숨죽인 코인거래소

매일경제

거래소들은 이번에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아 당국에 신고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은행 파트너를 잡지 못한 거래소들은 폐쇄가 불가피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기존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들과 재계약이 유력

국민銀, 인니 1.6조 손배소 리스크 해소

서울경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에 이전 대주주가 제기했던 1.6조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인도네시아 사업 진출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
국민은행은 7일 부코핀은행의 이전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과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상대 행정소송 결과도 수용하기로

은행들, 해외 투자도 '디지털'...플랫폼서 인터넷은행까지

비즈니스위치

국민은행은 최근 글로벌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확대 구축에 나섰다. 글로벌 비대면 채널의 은행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기반 글로벌 리테일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다.
신한은행 역시 최근 글로벌 디지털 뱅킹 개발을 추진해 관련 작업을 수행할 외부 기업 모색. 인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서 SOL 서비스 확대하고 신 시스템 구축 예정

아마존처럼 금융사업 나서는 쿠팡... '구매이력=신용' 시대 열린다

이데일리

쿠팡은 지난해 8월 쿠팡페이를 분사시키면서 간편결제 분야 사업 진출을 선언한 데 이어 대출과 자산관리 보험 서비스 등으로도 확장할 전망
실제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 목적을 보면 '보험대리점업'도 기재. 핀테크 업계에서는 쿠팡의 금융사업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車보험 손해율...대형사 '안도', 중소형사 '긴장'

이코노믹리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지난 5월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76.8%로 4월 79.8% 대비 적정 손해율 유지에 성공하며 안정세 이어가
대부분 중·소형 손해보험사들도 전월 대비 손해율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낮아진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체들이 적정 손해율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

해외 부동산 다시 뜨나...증권사·운용사, 줄줄이 실사팀 출격

뉴스토마토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대체투자팀이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해외 현지실사를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
코로나 시국에 증권 및 자산운용 업계가 해외 출장길에 오르고 있다. 코로나로 주춤했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에 재개하는 모습

"소액단기부터 장기보험까지"... 카카오페이 진출에 보험사는 '초긴장'

머니S

보험사들이 오는 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사 예비허가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카카오페이가 소액 단기 보험과 자동차보험부터 시작해 점차 장기보험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 차후 경쟁한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보는 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